





16



24



3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횡클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패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차 례

| | |
|-------------------|-----------------------|
|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 1 |
| 하나님의 참아들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2 |
| 예기치 않은 손님 | 엘 시 엠 릭.....11 |
| 바바리아 지방의 추억 | 마가렛 오 데이튼.....12 |
| 요셉 스미스가 알았던 | |
| 물몬경의 인물들 | 로보트 제이 우드포드.....14 |
| 잊어버린 안식일 | 재닐리 게일.....20 |
| 에스겔의 막대기 | 케이스 에이치 메저비.....23 |
| 게시 | 델린 에이치 오우크스.....30 |
| 영원히 지속되는 선물 | 대관장단.....42 |
| “요셉 형제” |44 |
| 백설의 담요 | 도로시 비 루비.....46 |
| 지역 소식 |50 |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20호, 제19권 제1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3년 12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데이비드 씨 버틀러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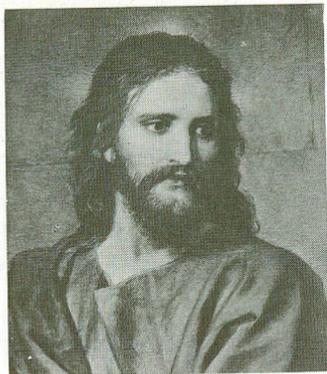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642KO PRINTED IN SEOUL, KOREA 12/83 International magazine

© 198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탄절 메시지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하하는 기쁨의 명절인 성탄절을 또다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 기쁜 절기에 온 누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구세주가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부른 평화와 좋은 소식의 영광스러운 희망이 새로이 움돋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탄생과 그의 순결한 생애와 인류의 죄를 위해 기록하신 희생을 치르시어 자신의 뜻으로 죽음을 택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약속을 안겨 주신 영화로우신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경건한 마음을 지니지만, 이 거룩한 절기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시 오실 약속된 메시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사업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12)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로, 모든 남녀노소를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시어 그 안에서 온전케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탄 절기에, 우리는 만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인류의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거룩한 원리에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안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

대관장단

하나님의 참아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때는 바야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지는 성탄절기입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신 사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걸으신 길

몇 해 전 어느 성탄 절기에 우리는 예수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을 걸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갯세마네 동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귀중한 몇 시간을 보내며, 예수께서 그 옛날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과 부활을 앞두고 고난받으셨던 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도하시고, 죄인으로 잡히시고, 재판받고 심판받으신 곳에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성벽 밖으로 나간 우리는 작은 동굴이 들성들성 뚫려 있고, 해골 모양으로 된 둥근 바위 언덕에 올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골고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언덕 뒤로 내려와 그 절벽 가까이 이르러 작은 창문 크기의 입구로 들어서서 대충 깎아 만든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그의 육신이 놓였던 곳입니다.

이 무덤 밖으로 나와 작은 동산에서 우

리는 여러 시간을 보내며,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주님의 몸을 매장한 일과 부활에 관한 복음 이야기에 심취되었읍니다. 우리는 여인이 무덤에 이르고, 주님의 천사가 돌을 굴러 내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을 깊이 음미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한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는 듯한 심경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성취됨

주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누가복음 24 : 7)

우리는 마리아와 천사와 주님이 나누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



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이다” 그녀는 뒤로 돌아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 : 13-17)

감람산

우리는 그런 다음 대개 주께서 걸으셨던 곳으로 짐작되는 길을 따라 약간 가파른 감람산을 땀을 흘리며 걸어 올라갔는데, 그 길은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 40여 일간을 지상에서 보내시며 수많은 확실한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실재했음을 인식하도록 확신을 주시고 걸으셨던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서서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 : 8)

우리가 그곳에 있는 오래된 감람나무 가지에 앉아 이 성구를 읽으면서, 우리는 주께서 이 지점 근처에서 염려와 사랑과 놀라움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서 계시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안개가 스며들며,

구름이 언덕 위에 가득 찬 가운데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 : 11)고 말하는 것이 거의 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에베소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서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4 : 8, 10)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

우리가 이토록 특별한 행사를 축하할 때 본질적인 면에서 그것을 세속화 시키려 하며, 축하하는 이유의 의의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주님의 탄생과 부활의 깊은 뜻을 새기기 보다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더욱 즐기려 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사라는 사실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되시는 사실을 무시하려 드는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실재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기 보다는 사도들의 사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유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요한복음 3 : 11)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증거한 말도 기억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2:36)

“너희가 거룩하고 외로운 자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사도행전 3:14)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 공회 앞에 나와서 대담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10, 12)

공회에서 두 사도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하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사도행전 4:19-20)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사도행전 4:33)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거

우리는 또한 부활이 실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지상에 살아 있을 때 박해자들의 공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

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사도행전 5:30, 32)

우리는 것처럼 완전하게 확신하며, 지도자로서 권능의 옷을 우아하게 걸치고 영광과 확신으로 가득 찬 용기를 지닌 위대한 베드로 앞에서 경의를 느낄 따름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박해자와 불신자와 역경으로 가득 찬 세상과 맞서 나가면서 얼마나 큰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그가 자신이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언제까지든지 지킬 줄 모르고 증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가 굳굳하게 폭도와 고위 성직자,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관리와 맞서서 부활하신 주님, 평화의 왕자, 거룩하며 공의로우신 분, 생명의 왕자를 대담하게 전파하는 모습에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의 확신은 분명하고도 소멸되거나 결코 시들어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확신으로부터 많은 분명함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거룩한 순교자 스테반의 간증과 말씀을 읽어 보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스테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사도행전 7:55-56)

스테반은 순교자였으며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지 않고, 여전히 살아 계시어, 아버지와 함께 승영된 영광로운 상태에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의 간증은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 사울은 “주여 뉘시오니까”하고 물었으며,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사도행전 9:4-5)

이제는 바울이라 개명한 바로 그 사람은 힘을 되찾고, 신권의 권능을 받았으며, 잃었던 시력을 되찾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로 가득 찬 공회당으로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사도행전 9:22) 하였습니다.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갔으며,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위하여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사도행전 9:27)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사도행전 13:29-31, 33-34).

아레오바고에서의 간증

바울이 아덴(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한 간증은 뜻깊은 것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어떠한 신이든지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모든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한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겼으며, 바울은 이와 같이 시험하여 그들이 아무리 나무와 돌로 신을 만든다 하여도 참신은 알지 못함을 일깨워 주었



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읍니다”(사도행전 17:24-26, 31.)

바울은 다시 자신의 개심에 관하여 말하고 간증하며 “나는 나사렛 예수라”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아나니아는 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22:8, 15)

그런 다음 그는 아그립바왕에게 아주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사도행전 26:8)

그리고 다시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린도전서 9:1-2)

부활하신 주님은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린도전서 15:6-8)

그런 뒤에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는 자리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아름다운 보고서를 들려줍니다.

나는 우리와 같은 사도인 우리의 형제 바울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는 그다지도 헌신적이며, 겸손하고, 솔직 담대했습니다. 그는 열성적이고, 깊은 관심을 지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인정이 많았으므로, 그가 사람들 곁을 떠나 가려 하면 그들은 지극한 애정으로 그에게 매달리며 떠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말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죽어 순교하기까지 굳건히 흔들림이 없으므로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가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가 겪어낸 무수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때마다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의 간증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 즉, 이미 복음으로 돌이킨 사람들과 장차 그의 말씀으로 영향받게 될 사람들에게 간증한 말씀은 모든 역사의 시기를 통하여 길이 기억될 기념비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예언자는 죽음에 임박하여 머지 않아 자신이 이 육신을 떠나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후대의 세대들이 모두 그의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간증의 메시지를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다”(베드로후서 1:16-18)

요셉 스미스의 증거

우리는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시켜 주는 증거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는 요셉 스미스가 참혹하게 살해되기 며칠 전인 1844년 6월 어느 날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서 연설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육신을 죽일 뿐으로, 그들의 힘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벗들이여 굳건히 서십시오. 결코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해의 영광의 왕국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교회 정사 6:500)

부활의 확실성

거룩한 부활이 확실히 있음은 기독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란서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서 내세를 느낀다. 내가 끝날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내 주위에서 나를 부르는 세계의 불멸의 교향곡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된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면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나는 내게 주어진 날의 일을 마쳤노라.’ 그러나 ‘나는 내 생애를 마쳤노라’고는 말할 수 없으리라. 내 하루의 날은 다음날 아침에 시작되리라. 무덤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훗히 트인 길이다. 그것은 저녁에는 닫히고, 아침이 되면 열린다.(시, “빌레이콰이어” 중에서.)

어떤 무명 작가도 불멸에 대한 말로 표현할 길없는 소망의 자연스런 느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불멸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이처럼 가슴벅찬 소망과 애뜻한 열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또한 사후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은밀한 두려움과 내적인 공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왜, 인간은 멸망을 향하여 위축되고 놀라는가?

이는 우리의 내부에 신성이 잠재하며, 이후의 세상을 가르치는 하늘, 바로 그것ियो

영원을 인간에게 의미함이라.”

옴의 질문과 응답

옴이 던진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의 관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그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평화를 안겨 주었습니다. 고통스런 번민에 시달리면서도 전혀 이해할 길없는 평안을 느낀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내밀한 평정이 고통스런 마음과 같같이 찢긴 영혼에 새롭고 따스한 확

신을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옴의 말을 되받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리라”(욥기 19 : 25-27)

옴은 자신의 간증이 그 뒤를 따르는 세대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책으로 쓰여지거나 돌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인간이 그의 강한 간증을 읽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으므로, 그의 소원대로 된 것입니다.

요한의 시련

마지막으로 나는 계시 요한의 시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요한계시록 20 : 12-13).

쓸쓸하고 죽음과 같은 겨울이 지나면 생기고 활기찬 봄이 오듯이 모든 자연은 부활하신 주님의 신성을 외칩니다. 성탄 절기를 맞아 우리 모두 그가 창조주이시요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참아들이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몇 가지 강조 사항. 가정 복음 교육 토

론시에 이러한 요점을 토론할 수 있다.

1. 주님은 그가 “최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하리라고 예언하셨다. 그것은 영원한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2.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구세주의 신성과 그의 부활하심을 간증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걸었다.

3. 현대의 예언자들 역시 부활의 진실성을 선언했다. 예언자 요셉은 “진리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끝까지 충실하게 참으면, “우리는 부활하리라.”고 그는 말씀했다.

4. 다른 사람들도 인간에게는 육신의 지상 생활보다 더욱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빅토르 위고는 “무덤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훨씬 트인 길이다.”라고 말했다.

토론 지침

1. 사도들의 신앙과 그들이 기꺼이 부활의 실재를 증거한 데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한다. 가족들에게 그들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 중에서 가족이 큰 소리로 읽고 토론한 성경 구절이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그 집의 가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이 토론이 더욱 효과를 거둘 것인가? 구세주의 가르침에 관하여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정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

예기치 않은 손님

엘시 엠 렉

대 체로 월요일 아침엔 빨래를 해 왔었다. 그러나 성탄절을 앞둔 월요일에는 어떻게 하면 성탄절 식탁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가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재료를 사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길을 건너 버스 정거장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나는 마음을 바꾸어 걸어가기로 했다. 삼분의 이쯤 걸어갔을 때 자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가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자치도시의 노인회의 대변인으로 우리 와드에서 매년 그들을 위해 음악회를 연 것에 대해 그 단체를 대표해서 고마움을 전해 왔었으므로 그녀를 알아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성탄절을 혼자서 보내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그날 아침 바로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어떤 충동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도록 초대했다. 이제는 장식이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나, 나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가서 재료를 구입했다.

그러다가, 내가 특별한 손님을 내 멋대로 오라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당황하게 되었다. 비회원인 남편은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여섯 명의 친척을 오라고 초대했는데(두 명은 노인이고 두 명은 어린 아이들이었다). 거기다가 우리집 식구도 네 명이나 되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처음에 남편은 나의 의견을 별로 탐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성탄절은 가족을 위한 절기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할머니는 전혀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게 되었음을 느꼈으므로, 그 일에 관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나의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들에게도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날이 되자 우리 집안에는 다시 맑은 기운이 감돌게 되었으며, 우리 집에 특별한 손님이 오는 것을 모든 가족이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성탄절을 즐겼다. 그녀는 구세주의 간증과 더불어 우리 집안에 사랑의 영을 듬북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믿음을 우리 비회원 친척들에게 간증하였으므로, 나도 그녀의 신앙 태도에 일치할 수 있었고, 그 어느때보다도 복음에 대하여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친구가 그 길을 닦아 놓았던 것이다.*



바바리아 지방의 추억

마가렛 오 데이튼

나는 아빠의 제안에 마음이 좀 언짢았다. 여려해 전부터 성탄 전야에 송가를 부르고 다니는 것이 가족의 전통이 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한 파트에 적어도 두 사람씩 노래부를 수 있을 만큼 식구가 많았으므로 그렇게 해 왔으며, 노래를 통해 이웃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빠는 이번 성탄 전야만은 송가를 부를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아빠는 공동 모지를 찾아보자고 제안하셨다. 그 해에 우리는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독일 남부의 아름

타운 마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그 지방 문화와 전통을 즐기려 노력했다. 우리는 전통적인 여행자들의 경로에서는 눈길에 벗어나 있는, 마마리아인들의 작은 마을을 자주 방문했다. 따라서 성탄 전야에 공동 묘지를 방문하자는 제안은 참으로 이상스런 일이었다.

우리는 두툼한 코트와 따스한 스카프를 둘러쓰고, 좁고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 올라가 교회 묘지로 걸어갔다.

우리는 가족의 축사와 연결된 산장을 자주 지나쳤으나, 오늘밤 이러한 집들은 여행자들이 마굿간에서 함께 지낸 첫번 성탄절을 회상시키 주는 제질의 전통과 더욱 잘 어울려 보였다.

우리가 언덕 마루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뾰족탑 교회에서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교회를 지나 교회 뒤에 있는 작은 공동 묘지로 들어갔다. 다른 가족들도 그곳에 있었지만, 모두 정진하고 조용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광경을 놀라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무덤 위마다 몇 가지 성탄절 기념물이 있었다. 아름다운 화환이며, 불타는 촛불, 싱싱한 꽃, 반짝이는 장식이나 달린 조그만 장식, 예수 탄생의 장면을 새긴 것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들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탄절을 축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마음으로 그들의 가족을 애뜻하게 생각하여, 성탄절을 공동 묘지로 이끌어 왔던 것이다.

눈이 소릿이 싸이는 눈소리와 더불어 조용히 그곳을 떠나는 우리는 지독한 가족 행사에 무관 침입한 것과 같은 마음이었다.

그해의 성탄절 행사는 그 이듬해에 맞

게 된 유타 제곡의 아름다운 겨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아파가 그 전례에 돌아갔으므로, 아무도 가족이 부르는 성탄 성가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지 않았다. 여전히 감정이 그대로 밖으로 나타날 것 같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을 함께 모아, 우리는 다시 공동 묘지를 찾아 나섰다. 우리는 독일식 화환을 들고 갔다. 이번에는 우리 가족뿐이었다. 우리가 아파의 무덤에 화환을 놓고 부른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노래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우리 주위에는 집은 안개가 드리워져 조용한 신비로 우리를 둘러쌌으며 공동 묘지 밖을 바라볼 수 없어 그곳이 마치 세상의 끝일듯 느꼈다.

그러나 아,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구세주로 인해 세상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인생은 육신을 매장하는 것과 더불어 끝나지 않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공동 묘지에서 아파를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희망, 우리의 구속주의 탄생하심을 함께 즐기고, 그의 평화로운 메시지로 우리의 외로움을 크게 누그러뜨려 주었다.

그러한 성탄 전야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을 일깨워 주었으며, 그러한 것으로 인해 구세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진 것에 대하여 나는 참으로 감사한다.

✽

마카렛 오 테이든
세 자녀의 어머니인 에 자매는 유타주 프라이어스 와드의 회원이다.

요셉 스미스가 알았던 물몬경의 인물들

로버트 제이 우드포드



요셉 스미스 일세의 가족은 그들의 아버지가 조끼 주머니에 갖고 다니던 안경에 손을 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녁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매일 노래와 기도와 성경 읽기로 하루를 끝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회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곤 했다. 그러나 모로나이가 1823년 9월에 어린 예언자 요셉을 처음으로 방문한 직후에는 이 가족 모임에 특별한 면이 더해졌다고 예언자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때부터 요셉은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계속해서 매일 저녁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지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 못지 않게 특이한 면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모두 원을 그리고 있어서 18세의 소녀에게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대화 시간에 이따금 요셉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이 대륙의 고대 주민과 그들의 복장, 여행 방식, 그들이 타고 다녔던 짐승, 그들의 도시, 건물, 모든 특별한 일, 전쟁 방식, 그들의 종교적 예배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치 평생을 그들과 함께 생활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해주었습니다.”

이 상세한 설명은 모로나이가 처음 방문한 때로부터 요셉이 금판을 꺼내도록 허가받을 때까지의 4년 동안에 행해졌다. 이런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불행히도 그의 역사 기록은 이것뿐이다.

“나는 매년 연말에 거기에 갔으며 언

제나 똑같은 사자를 거기에서 보았으며 만날 때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려 하시며 말일에 그의 왕국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될 것인가에 관하여 그로부터 가르침과 지식을 받았습니다. (교회 정사 1:16)

그는 그 이후의 만년에도 당시의 사건에 관하여 상세히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다. (교회 정사 1:220 참조) 한 가지 드문 예외가 존 웬트워스에게 쓴 그의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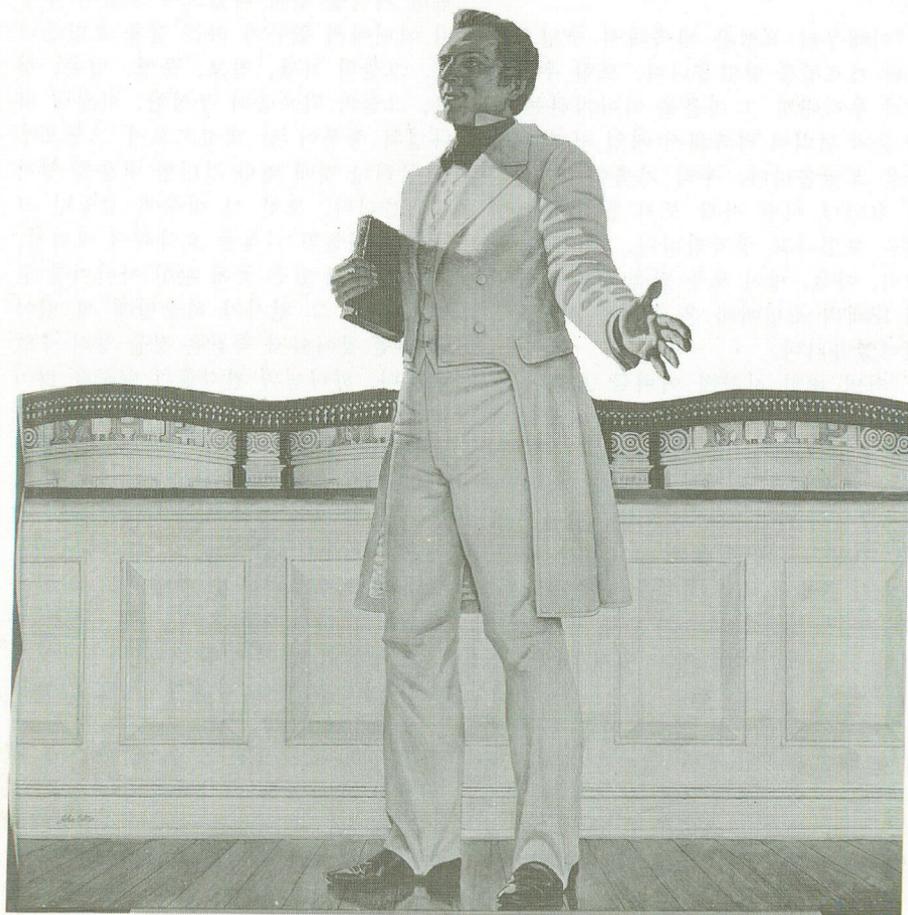
“나는 또한 이 나라의 토착 원주민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으며 그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원, 진보, 문명, 법률, 정부, 그들의 의로움과 부정함,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한 백성으로서 그들로부터 물려난 것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륙에 살았던 고대 선지자들의 기록을 요약해서 새겨진, 기록이 묻혀 있는 곳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천사가 하룻밤에 세 번이나 나를 찾아와서 똑같은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방문을 많이 받고 말일에 일어날 여러 사건의 위대함과 영광을 들은 다음에 1827년 9월 22일 아침에 그 주님의 천사가 그 기록을 내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타임 앤드 시즌즈, 1842년 3월 1일)

따라서 모로나이가 처음으로 예언자 요셉에게 그런 지식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가 판을 받기 전에 많은 천사가 그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설교집 14:140 참조)

그 이외에도 요셉 스미스의 가까운 친지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윌포드 우드럽은 요셉이 “하늘에서 온 천사들과 하나님의 음성과 성신의 영감과 권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

“이때부터 요셉은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계속해서
매일 저녁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는(요셉 스미스)
수시로 하늘로부터 오는
대화에 의해서
말일에 일어날
위대한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는 지나간 일들을 알았으며
여러 경륜의 시대와
그 경륜의 시대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했다. (설교집 16 : 35)

올슨 스펜서는 “그가 말할 때 고대의 예언자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실존 인물로서 부각되었는지”를 기록했다.

물문경을 회복하는 열쇠를 지녔던 모로나이가 이 준비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교성 27 : 5 참조) 그는 최소한 스물 네 번을 방문하여 젊은 예언자와 함께 일했으며 1823년 9월 21일과 22일 사이의 밤에 세 번 나타났다. 한 번은 요셉이 밭에서 자기 집으로 오는 도중에, 그날 늦게 요셉이 금판을 처음 볼 때 구모라 언덕에서, 요셉이 1824년, 1825년, 1826년 9월 22일에 언덕으로 다시 왔을 때 세 번, 1827년 여름에 한번씩 각각 방문했다. 요셉의 아버지가 그를 심부름 보낸 일이 있는데 그는 그날 밤 매우 늦게 몹시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렇게 설명했다.

“금판이 있는 구모라 언덕을 지나는 동안 천사가 나를 만났으며 내가 주님의 사업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록이 나올 때가 되었으며 내가 일어서서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시 맥 스미스, 요셉 스미스 전기 약사, 98-99 페이지.)

요셉이 판을 받은 1827년 9월 22일에 열번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 그 천사가 예언자로부터 금판과 우림과 둠뎀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틴 해리스가 그 기록을 가져가게 하는 특권을 주님께 부탁드려 주님을 지치게 만들고 마틴 해리스가 범법하여 그 기록을 분실한 결과였습니다.” (교회 정사 1 : 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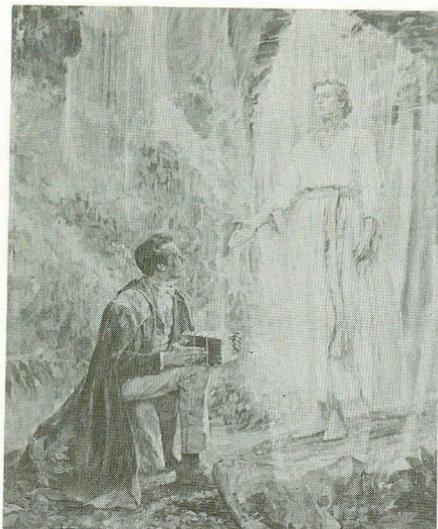
그 사자가 후에 우림과 둠뎀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열 두번째 방문) 요셉 스미스는 이 우림과 둠뎀에 의하여 교리와 성약 3편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그의 부주의를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우림과 둠뎀을 가져갔으나 나중에 금판과 우림과 둠뎀을 모두 돌려주어 번역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교회 정사 1 : 23) 루시 맥 스미스의 말에 의하면 이 열 네번째 방문은 1828년 9월 22일에 일어났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1878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와 올슨 프랫에게 열 다섯번째부터 열 일곱번째까지 세 번 더 방문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와 요셉 스미스와 함께 번역을 끝내기 위하여 뉴욕주 페이에트로 여행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매우 인상이 좋은 상냥한 노인이 우리 마차 옆에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따뜻하군요.’라고 인사를 하며 손으로 얼굴과 이마를 훑었습니다. 우리는 답례를 했으며 나는 요셉의 신호를 받고 우리와 같은 길을 가면 함께 마차를 타고 가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유쾌한 음성으로 ‘아닙니다. 나는 구모라로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름은 나에게 생소한 것으로써 나는 구모라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보고 서로 쳐다보았으며 내가 의문에 차서 요셉을 보는 동안에 그 노인은 즉시 사라졌으며 나는 다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 그의 외모를 보았습니까 ?

“데이비드 휘트머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키가 약 150센티미터 가량 되었습니다…… 그는 갈색의 모직 의류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머리와 수염은



이다.

모로나이 이외에도 구세주께서 그가 니파이인에게 임하신 것이 물몬경의 중심이다. —첫번째 시현 때, 교리와 성약 76편이 주어질 때, 또한 커틀랜드 신전에서 직접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 (교회 정사 1 : 5-7, 교성 76 : 19-24 ; 110 : 1-10)

이런 방문 이외에도 초기의 기록자들이 구세주의 또 다른 방문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베디 콜트린이 솔트레이크 스테이크의 예언자의 학교에서—여기에는 존 테일러 대관장과 다른 총관리 역원이 있었음—행한 연설에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최초로 예언자의 학교가 조직된 2~3주 후에 한 모임에 구세주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말씀없이 그 방을 지나가셨으며 요셉 스미스가 그 거룩한 방문객을 알아보았다고 했다. “저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형님입니다.”

몇 명의 다른 물몬경 인물들이 물몬경 출판과 관련하여 방문했다. 팔리 피 프랫은 이렇게 말했다.

“그 젊은이를 통하여 또한 그에 대한 거룩한 천사들의 성역을 통하여 이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설교집 , 9 : 212)

따라서 요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 살 때 니파이인이었던 천사들의 성역에 의하여 도움을 받은 것 같다.

조지 큐 캐넌 장로는 이 천사들 가운데 두 사람이 아마도 엘마와 니파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집 13 : 47) 캐넌 장로는 나중에 행한 연설에서 요셉 스미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위대하고 거룩한 부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집, 23 : 362) 모로나이 및 여러 경륜의 시대의 우두머리를 포함한 천사

흰 색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등에 어떤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책같이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판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가 하모니로부터 떠나기 직전에 요셉으로부터 판을 가져간 사자였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한 직후에 나는 어떤 징표를 보았는데 그것은 판이 우리 아버지의 헛간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요셉에게 내 추측이 맞느냐고 물었으며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언자의 학교의 기록, 솔트레이크 스테이크, 1883년 10월 3일)

번역이 끝났을 때 요셉은 판을 천사에게 돌려주었으며 천사는 나중에 그것을 요셉과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보여 주었으며 같은 날 늦게 다시 돌아와서 마틴 해리스와 요셉 스미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기록된 마지막 두 방문은 요셉이 천사로부터 판을 받고 그것을 여덟 명의 목격자에게 보여 주고 다시 천사에게 돌려줄 때 일어났다. 알려진 방문이 스물 두 번

들의 방문을 끊임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여기에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요셉 스미스) 수시로 하늘로부터 오는 대화에 의해서 말일에 일어날 위대한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는 지나간 일들을 알았으며 여러 경륜의 시대와 그 경륜의 시대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여러 원리를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그런 경륜의 시대에 지도자로 일했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일에 주님의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권능과 열쇠와 신권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셉 스미스에게 그런 열쇠와 이 권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위임해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설교집, 20 : 174-75)

존 테일러 장로도 그 방문자들이 “물론, 모로나이, 니파이 및 이전에 미대륙에 살았던 고대 예언자들”이라고 했다.(설교집, 17 : 374)

테일러 장로는 1879년 유타주 에브라임에서 니파이인 12사도들도 요셉에게 왔다고 말했다.

“그가 지니고 있었던 원리로 인하여 그는 주님과 대화를 했으며 주님 뿐 아니라 고대의 사도 및 예언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아담, 셋, 에녹,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및 아시아 대륙에 살았던 사도들 뿐 아니라 미대륙에 살았던 사도 등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 잘 아는 것만큼 이 사람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설교집 21 : 94)

테일러 장로는 나중에 솔트레이크시티의 14와드에서 행한 말씀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로나이 천사가 그에게 와서 물문경

을 제시해 주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이 대륙에 살았으며 그 당시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졌던 고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니파이가 왔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영향을 받아 이 대륙에서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풀었던 물론과 니파이 및 다른 예언자들 이외에 누가 그 대리자로 다시 작용할 수 있었습니까?”(설교집, 21 : 161, 163)

올슨 프랫은 유타주 브리검시티의 존 크리스텐슨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예언자는 자주 니파이, 모로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주님의 사랑받는 자), 침례 요한, 엘리야, 모세, 세 니파이인 등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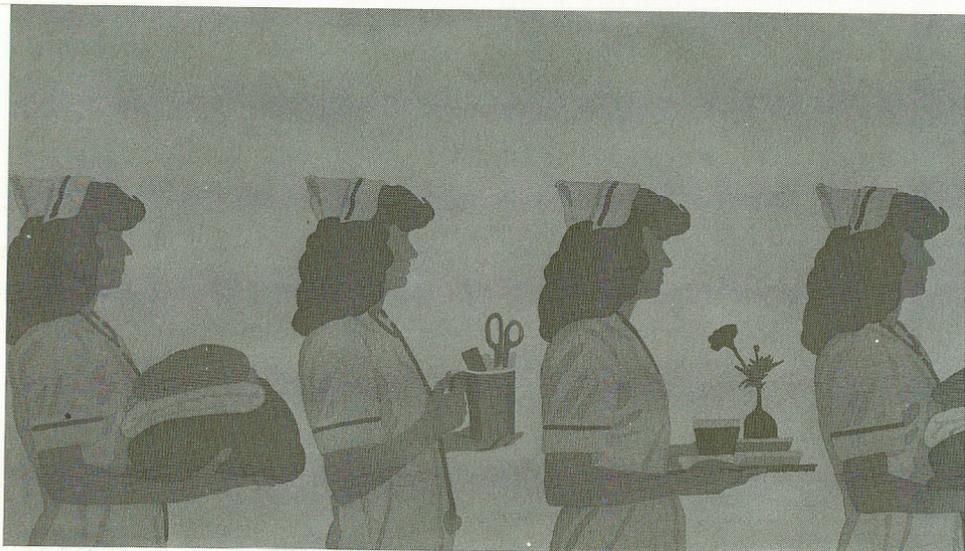
우리는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로서의 사명과 물문경의 번역은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 세기 동안 기다리며 기도해 온 사건이었다. 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 자신은 신성한 침묵을 지키고 나중에 그의 천우들이 말한 이 젊은 예언자에 대한 가르침과 영감을 주는 그런 방문은 그가 이 경륜의 시대에 그가 첫째되는 선견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의 형제인 윌리엄 테일러의 말씀은 이 예언자의 위대한 은사에 적절한 찬사를 돌리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와 똑같이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장막 저 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타 대학교 말일성도 신학 연구원 교수인 로버트 제이 우드포드는 솔트레이크 윈더 웨스트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잊어버린 안식일

재널리 케일



오늘은 참으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날 중의 하루이다. 여섯 시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일어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다. 새들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 아닌가! 게다가 오늘은 나의 하루 일과를 쉬어야 하는 일요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하러 가야 했으므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마지못해 갈 것이다. 단 10분만 더 자야겠다.

나의 이름은 제이너이며 이상은 어느 일요일 아침에 내가 느꼈던 솔직한 심정이었다. 물론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

는 LDS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날은 일하러 가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니 7시 5분이었다. 나는 7시까지 도착해야만 했었다. 홀에 있는 시계를 쳐다보며 전전 궁궁하면서 승강기 단추를 여러 번 눌렀으나 승강기는 5층에 머물면서 내려오질 않았다.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6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숨이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갑자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리

“나는 하나님의 영을 느꼈으며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는 듯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병원에 있으며 심장 마비를 일으키더라도 누군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안심 이 되었다.

홀로 내려갔다. 사무원 길을 지날 때 그녀는 일을 멈추고 쳐다보면서 무표정 하게 말했다. “당신을 제외하고 모두 일 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날 지시 사항을 듣기 위해 다른 모든 간호원들이 집합해 있는 보고실로 조심 스럽게 들어갔다.

그 모임에서 나는 여러 환자를 지명받

았다. 모두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었으 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나는 목욕을 시키고, 침대 시트를 갈아 주고 모니터 장치를 하고, 온도를 재고, 음식 을 날라 주고, 의료 기록을 적고, 약을 먹이고, 붕대를 갈아 주고, 아픈 근육을 주물러 주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의사를 도와 주어야 했다.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일하는 것뿐이었다.

한참 일하고 있는 중에 홀에 있는 대형 스피커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교회에 참석하길 원하는 환자는 담당 간호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나는 오늘이 일요일이었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말고 있는 환자들에게 30분짜리 짧은 모임에 참석하고 싶으냐고 물어 보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너무 아프거나 너무 지쳐 있었다. 나 역시 그렇게 느껴졌다. 관절염과 골절암 환자인 휘트머 부인만이 나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즉, 매 순간마다 고통을 느끼며 병상에 누워 있는 이 사랑스런 부인은 모임에 참석하길 원했다.

나는 모임을 진행하는 형제님에게 휘트머 부인은 침대에 누운 채로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곧 서둘러 머리를 빗기고, 세수를 시키고, 옷과 침대 시트를 갈아 주고 교회에 참석할 준비를 시켰다. 그녀는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런 얼굴로 찡그렸지만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다. 준비가 되자마자 형제들이 오셔서 그녀를 데려갔다. 나는 그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 주의를 돌렸다.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 마침내 나의 근무 시간이 다 되었다. 나는 이제 쉴 수가 있다! 나의 근무처를 떠나기 전에 나는 내가 담당했던 환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 보았다. 휘트머 부인은 교회에서 돌아온 이후로 아주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고맙게도 다른 모든 환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침에 서둘러 일하러 간 것같이 급히 아파트로 돌아와 또 하루의 근무를 마쳤다.

며칠 후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막 근무를 마치려고 하는데 나의 담당이었던 4호실 환자가 부르는 응급 신호 등불이 들어왔다. 나는 마음 속으로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나가려고 하니 부를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귀찮게 여긴 것은 아니었다. 나는 홀로 내려가 어두운 방을 지나 환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갔다. 그 환자는 다름아닌 휘트머 부인이었다.

“제이너예요?” 그녀가 물었다.

“예.”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는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난 일요일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얼마 동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교회에 참석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당신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찬을 취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느꼈으며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나 또한 목이 메어움을 느꼈다. 이 훌륭한 여인은 몸은 약했지만 신앙은 나보다 더 강했다. 그녀는 열렬하고 강한 간증을 갖고 있었다.

또한 휘트머 부인을 준비시켜 교회에 참석시킨 그 일요일과 그 때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기도 하듯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 준비시켰던가를 기억했다. 다시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 둘은 그날 저녁 함께 울었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감정과 생각을 나누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과 서로 마주 잡은 손에 전달되는 따사로움이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

에스겔의 막대기

케이스 에이치 메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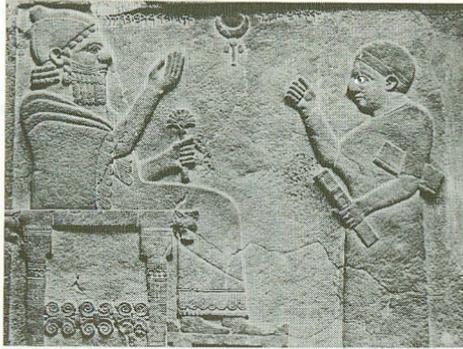


모든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성구를 인용해 왔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

라” (에스겔 37:16-17)

말일성도들에게 이 성구는 말일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돕기 위하여 요셉의 막대기, 즉 물문경과 유다의 막대기, 즉 성경이 합치게 될 것을 에스겔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교회내의 성경 해석자들은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인지 두루마리인지 또는 홀인지,



나무판과 같은 책을 읊기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조각 그림.
 “책”의 “등”은 실제로 판에 있는 경첩이다. (바베롭의 돌 기둥, 베르린에 있는 국립 박물관인 포더라디스티에스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진을 게재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리와 성약 27편 5절의 말씀을 빌어 각 막대기는 경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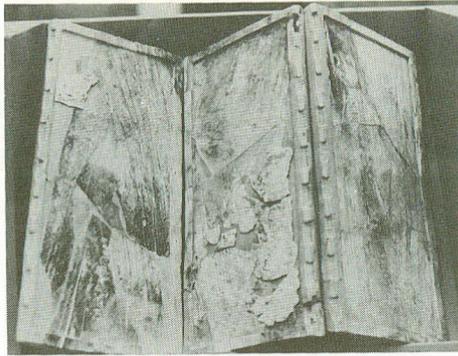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계속 반박을 받아 오고 있다. 교회 밖의 성경 학자들은 “막대기”를 지팡이 또는 홀이라고 해석한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은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뜻에 더 잘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막대기에 관한 예언 바로 다음에 나온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찌라” (에스겔 37 : 21-22)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 두 종족의 홀이 합치는 것이 나뉘어진 지파들의 재결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해석은 이러한 내용과 다르고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말일성도들의

해석을 “반경전적”—어떤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전후 관계에서 벗어나 성구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종류의 비난을 고려하여 헤롤드 비리 대판장은 1968년에 브라잠 영 대학교에서 열린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교사 모임에서 행하신 말씀에서 교회의 해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재확인시켜 주셨다. “보고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막대기가 물문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밝히고 있는 교리와 성약 27편 5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와 같은 교리를 가르치거나 진리를 알고 간증이 있는 여러분의 설명도 없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인의 관점” 브리잠 영 대학교, 1968년 7월 18일,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발행)

최근에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됨으로 인해 1830년에는 불가능했던 방법으로 요셉 스미스의 해석이 정확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몇 가지 언어적



가장자리가 높은 나무판, 이라크에 있는 사용되지 않은 우물에서 발견됨. (런던 영국 박물관에서 케이스 에이치 메저비가 찍음)

인 말을 살펴보기로 하자. 에스겔서의 이 부분에서 사용된 히브리어인 *etz*의 근본 의미는 목재이다.

*etz*이란 단어는 구약전서에서 약 300번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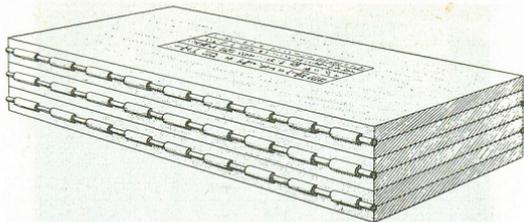
주전 3세기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기 위해 번역한 70인역을 살펴보면 *etz*란 단어를 목재(*ksylon*)란 말로는 249번이나 번역되어 있지만 나무(*dendron*)이란 말로는 단지 15번밖에 번역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번역자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모국어에 대한 예감이 있었다. 분명히 그들은 *etz*의 첫째 의미를 목재로 보았다.

그런데 이 70인역 번역자들이 그 중요한 37장에서 목재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지팡이(*rabdos*)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전체 구약전서에서 *etz*를 지팡이(*rabdos*)로 번역한 곳은 이곳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날,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이 유일한 70인역을 통해 이 문장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하다.

학자들은 번역자들이 민수기 17장 2-3절에 있는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님께서 모든 족장에게 그들의 이름을 그의 지팡이(*rabdos*)에 쓰고 그것을 회막 안에 밤새 두게 하셨다. 에스겔서 37장의 끝부분에는 왕국의 재결합에 관한 예언이 있다. 이 설명의 결점은 민수기에서 지팡이로 번역된 단어는 *etz*가 아니라 *matteh*란 단어인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지팡이를 뜻하는 완전한 히브리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려 했다면 왜 *matteh*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배경에서 이라크에 있는 고고학자들과 언어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오늘날의 이라크 국가는 고대 앗수르와 바빌로니아 왕국의 모국인 메소포타미아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주전 593년에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느브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잡혀온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유수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거리를 걸으면서 전형적인 서기관들이 썰기 모양의 철팔로 축



가까이에서 본 걸침이 달린 기록하는 판의 그림(엠 이 엘 멜로윈, 님루드와 유적들, [런던: 폴던즈] 153, 이라크에 있는 영국 고고학 학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축한 진흙판에다 우리에게서 썩기(설형) 문자로 알려진 복잡한 글자를 새기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파피루스, 양피지, 나무판과 같은 다른 종류의 기록을 만들고 있었음을 알아냈다. 비록 진흙판만이 수천년 동안 남아 있지만 기록자들은 진흙판에서 다른 필기 재료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현대의 고고 학자들은 파피루스와 양피지의 소재는 알아냈지만 나무판을 찾지 못했다. 설형 문자를 어떻게 나무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설형 문자를 나무에 그렸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쎄 니콜로가 남 바벨론의 우룩에 있는 애너 신전의 기록보관소에서 두 개의 진흙판을 발견함으로써 인해 바뀌고 말았다. 하나는 주전 596년, 다른 하나는 주전 582년으로 되어 있다. 그 기록자들은 모두 그들의 나무판을 채우기 위해 신전 창고에서 밀랍(및 쎄 니콜로가 알지 못한 몇 가지 다른 재료)을 얻은 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쎄 니콜로는 로마

인들과 그리스인들이 기록을 할 목적으로 가장자리를 잘라 얇게 밀랍을 입혀서 나무 밀랍판을 만든 것을 기억했다. 기록자들은 밀랍 위에 기록한 것이다. 불록 튀어 나온 가장자리는 두 판을 함께 놓을 때 기록한 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

바벨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했을까? 쎄 니콜로는 상형 문자를 기록하는 사람에게서 철필로 밀랍 위에 적는 것은 진흙 위에 적는 것과 거의 같았을 것이며 반면에 나무판 위에 그리는 것은 전혀 다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한 나무 기록판은 밀랍 기록판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1948년에 학계에 그의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그런 밀랍판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그 판들이 쉽게 썩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5년 뒤에 놀랍게도 고고 학자들은 고대 앗수르의 영토에서 그것을 발견했으며 그것은 그의 이론이 문자 그대로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것은 고고 학자인 멕스 멜로윈의 지휘 아래 성경에서는 갈라로 알려진 님루드시에 있는 우물 안 깊은 침전물 층에서



경첩이 달린 기록하는 판을 사용했음을 묘사하는 고대 자료의 또 다른 예. (런던 영국 박물관에서 케이스 에이치 메저비 찍음)

발견되었다. 첫번에 발견한 것은 가로, 세로 150센티미터 넓이에 12센티미터 두께로 되어 있는 편평하고 깨어진 상아판이었다. 그날 안으로 일꾼들은 이 깨어진 판의 다른 반 쪽을 찾아 내었다. 그들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그들은 두 세트의 완전한 판을 만들 수 있는 조각을 찾아 내었는데 하나는 상아로, 다른 하나는 호두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각각은 16개의 판으로 되어 있었다. 두 세트 모두 330×152×12센티미터인 같은 크기의 판으로 만들어졌다.

판의 모든 표면은 2.5센티미터 가량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며 12센티미터 넓이로 가장자리가 튀어 나와 있었다. 낮추어진 표면은 밀랍으로 채웠는데 이 얇은 조각들이 여전히 팔에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침전물에 섞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침전물로 대부분의 기록들이 남아 없어졌지만 증명만 한 것은 거기에 있었으며 한 조각에 있는 상형 문자는 읽어 볼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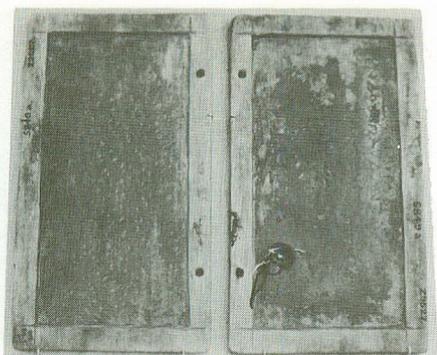
겉 표면을 밀랍으로 채우지 않은 표지판에는 양쪽에 경첩 자국이 있는데 이것

은 각 세트의 16개의 판들이 한때는 한국 병풍처럼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 모든 판에는 멜로원씨가 그것을 가장 오래된 책의 예로써 발표할 만큼 광범위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실험 분석에 의해 채운다는 것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밀랍 4에 비소의 황화물 1의 비율이었다. 비소의 황화물은 샌 니콜로가 진흙판에서 읽었지만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재료였을 것이다. 그것은 밀랍을 부드럽게 하여 철틀로 그 위에 분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표면이 밝은 노란색이 되게 했다. 하나의 밀랍 조각에 보존되어 있는 작고 정교한 기록은 매우 뾰뾰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30개의 기록판에는 거의 7,500행을 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나무판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적혀 있었다. “앗수르의 왕이오 세상의 왕인 사르곤의 궁전에 사르곤 왕은 Eunma Anu Enlil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을 상아로 된 판에 새겨 그의 궁전인 두르 샤루킨에 보관하게 하였다.” 주전

메소포타미아인의 기록하는 판의 재건,
 (런던 영국 박물관에서
 케이스 에이치 메저비 찍음)
 사진 제공자: 지 콘티뉴
 manuel d'Archeologie
 Orientale [Paris picard] 2215,
 그림 1244, 허가를 받아 사용함.)



이 기록하는-“막대기”-에는 지금도 약간의 밀랍과 비소 황아물이 남아 있다. 비소는 밀랍을 부드럽게 해주었으며 밝은 노란색을 띠게 했다.

705년에 사르곤이 죽었을 때 궁전은 빼앗기고 판들은 여러 갈래로 쪼개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금으로 만들었을 판에 달린 경첩을 떼어 가면서 그랬을 것이며 “가치가 없는” 판들은 우물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발견으로 인해 샌 니콜로의 가정은 증명되었다. 학자들은 is le'u 에 관련된 상형 문자를 통해 나무판을 고대 바벨론 왕국에서 주전 1700년부터 사용했음을 알아냈다. 또한 1,000년 후에 나무판들은 종교적인 교재, 의식, 보고서, 및 왕의 명령을 기록하고 호구 조사를 하고 토지 관계를 기입하고 선적한 물건의 영수 관계를 기록하고 기름 배급에 관한 기록을 하기 위해 앗수르에서 사용되었다.

학자들은 이전에 발견된 벽에 조각된 그림에서 앗수르인들이 나무판을 사용했다는 시각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다. 또한 북 메소포타미아의 아람인들의 고대 유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헬 족속에 관한 예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샌 니콜라는 헬 족속도 상형 문자를 사용했으며 그들은 그들의 기록 중 몇 가지를 나무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

을 기록한 기록자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대 학자들은 오랫동안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밀랍판을 사용했다고 알고 있었다. 사가라는 그의 어린 아들의 이름을 침례 요한이라고 그와 같은 판에 적었다. (누가복음 1 : 63) 그 판들은 적어도 주후 14세기 무렵까지 유럽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요컨대 기록을 하기 위하여 밀랍판을 사용하는 것은 수천년에 걸쳐 (주전 1700년부터 주후 1400년까지) 많은 문화 속에서 실시되어 온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 구절에 관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지식과 일치해야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경위와 맞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배경을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관습과 관례를 갖고 있는 바벨론 시대이며, 언어는 바벨론의 자매어인 히브리어이다.

바벨론어인 *is*는 히브리어 *etz*와 좋은 어원이며 둘 다 나무를 뜻한다. 상아판이 아카드어 원전에서는 *shin piri*로 만든 *is léu*-코끼리 상아로 만든 나무판, 이것은 불합리한 모순처럼 여겨지지만—라고 불리운다는 사실은 *is léu*가 “나무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간에 “기록하는 판”을 뜻함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라틴어로 책이라는 단어인 *liber*는 원래 “나무 껍질”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서관 직원이 나무 껍질 전문가는 아니지 않은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15-17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번역은 에스겔의 언어와 문화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번역은 주요 개신교 교회들과 영국에 있는 성경 학회 후원으로 번역한 새 성경 영문판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막대기를 “기록”으로 보는 것에 관해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실 막대기를 홀로 또는 다른 것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문화적인 배경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만 한다.

멜로윈이 고대 우물에서 발굴 작업을 펴서 나무판을 발견한 후 곧 우물이 붕괴되어 줄을 타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거의 문혈뿐 하였다. 멜로윈은 운이

좋게 판을 구한 것과 우물이 붕괴되기 전에 일꾼이 우물 밖으로 나온 것 이외에 판들을 모두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그의 느낌을 적고 있다.

“우물 밑바닥에 있는 유기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것은 거의 기적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침전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 놀라운 행운으로 우리는 한때 서아시아의 수많은 도시에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한 곳에만 남아 있는 기록의 종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으며 서기의 기록과 비슷한 형식임에 틀림이 없는 가장 오래된 증거 자료를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행운인가? 기적인가? 19세기 초 뉴욕 변경의 미개척지에 살았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성경상의 구절을 논리적이고 관례적인 해석에 반대하여 20세기에 이루어진 발견으로 인해 증명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석했었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요셉 스미스의 짧은 성역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세세한 것들이 회복된 복음 전체를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며 다시 한번 영감의 영역이 얼마나 길고 넓은가를 보여 주고 있음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

막대기를
“기록”으로
보는 것에 관해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제시

델린 에이치 오우크스

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대화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나 요셉 스미스 같은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와 직접 대화했습니다. 또 어떤 제시는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설명처럼 “잠잘 때는 꿈으로 또는 깨어 있을 때는 시현으로 주어졌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신앙개조, 208페이지)

제시나 영감은 좀더 친숙한 형태로 즉 마음속으로 전해지는 말이나 생각에 의하여 (교성 8:2-3, 이노스서 1:10 참조) 갑작스런 깨우침, (교성 6:14-15 참조) 제안된 행동 방식에 관한 긍정적인 느낌이나 부정적인 느낌에 의하여 심지어는 예술 활동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영감을 주는 활동에 의해서 옵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님은 “영감을 소리보다는 느낌으로 더 자주 옵니다”(보이드 케이 팩커, “기도와 응답” 대회 보고, 1979년 10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제시나 영감의 방식을 잘 안다고 가정하고 다른 분류 방식에 의하여 이 주제 즉 이 대화의 목적에 관하여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화가 갖고 있는 여덟 가지 다른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①간증, ②예언, ③위안, ④용기를 북돋움, ⑤알림, ⑥역제, ⑦확언, ⑧제

축. 이제 하나하나 이 순서에 따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예를 드는 목적은 여러분이 모두 자신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미 계시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계시가 실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확신을 드리 기 위한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영의 시현을 받는 것은 모든 말일성도의 위대한 특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대회 보고, 1899년 4월, 52페이지)

헤롤드 비리 대관장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나 자녀를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나 또한 자신의 사업 관리 및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은사와 특권을 행사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자신이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나 현명하고 신중하며 공정하고 신뢰될 수 있도록 계시와 영감의 영을 향유하는 것이 바로 그의 권리입니다.”(헤롤드 비리, 너희는 저룩한 곳에 설지어라 141-42페이지)

계시의 다음 여덟 가지 목적을 살펴보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어느 정도로 계시나 영감을 받았는지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영적인 은사를 좀더 자주 사용하도록 개발

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복음이 참되다는 성신의 간증 또는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했을 때 구세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 : 17) 이 귀중한 계시는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일단 받았으면 인생의 모든 활동에서 그를 인도하는 복극성이 됩니다.



2 예언은 계시의 또 다른 목적 또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책임 한계내에서 말할 때 미래에 닥칠 일을 예언할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계시합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가 남북 전쟁에 관하여 예언하고 (교성 87편 참조) 성도들이 록키

산맥에서 강한 백성이 되리라고 예언할 때의 경우와 같습니다. 예언은 축복사의 부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날 미래의 사건 즉, 우리가 받을 교회 부름 등과 같은 사건을 밝혀 주는 예언적 계시를 때때로 받을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의 다섯번째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아내와 저는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다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커질 수 없다고 결론짓고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신전에 있는 동안 성령이 아내에게 다시 아기를 낳으리라고 축복여 주었습니다. 그 예언적 계시는 우리가 13년이 나 기다려 온 여섯번째 아기의 탄생과 더불어 1년 반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3 계시의 세번째 목적은 위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계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있을 때 왔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비참한 상황에 처한 다음에 고뇌와 외로움 가운데 소리쳐 주님에게 자신과 박해받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위안을 주는 응답이 왔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교성 121 : 7-8)

똑같은 제시에서 주님은 예언자에게 어떤 비극과 불공정한 일이 닥치더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교성 122 : 7)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외에도 위안의 제시의 예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져 사랑하는 사람의 시현이나 그들이 같이 있다는 느낌에 의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느 훌륭한 친구의 미망인이 헤어져 남편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업상의 이익이나 심지어는 결혼까지 잃는 상태에 적응하는 동안 위안을 받았습니다. 위안의 제시는 또한, 신권 축복과 관련해서 축복문의 말씀이나 단순히 전해진 느낌으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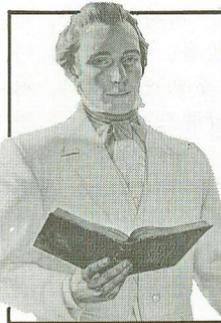
다른 종류의 위안의 제시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경의 한 예언자는 하루 밤낮 동안 온종일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이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노스는 “이에……나의 죄가 씻겨졌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노스서 1 : 5-6 ; 교성 61 : 2 참조) 이 확신은 한 사람이 회개의 모든 단계를 완수했을 때 오며 대가를 치루었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엘마는 그 순간을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지 않는 시간으로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 나의 기쁨보다 더 재미롭고 아름다운 기쁨도 없으리라” (엘마 36 : 20-21)



4 제시의 네번째 목적 또는 기능인 용기를 북돋음은 위안의 느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축복사가 말하는 축복이나 설교나 기타의 말씀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는 영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그들의 음성을 높여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이야기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해야 할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말할 바를 얻게 될 것임이니라.”



5 제시의 다섯번째 목적은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의기 소침, 예감이나 부적당하다는 느낌 또는 단지 영적으로 평범한 위치로부터 들어 올릴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일으켜 주고 우리가 악을 대항하고 선을 찾게 해줌으로 경전을 읽거나 건전한 음악, 예술, 문학울 즐기는 것과 관련되는 들어 올리우는 느낌은 제시의 명백한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교성 100 : 5-6 ; 84 : 85 ; 124 : 97)

특별히 성스러운 순간에는 고대와 현대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시현 등과 같이 하늘에서 온 분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가운데 알려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고요한 속삭임에 의해서 필요한 지식을 알려 줍니다.

귀중한 소유물을 잃은 어린이가 도움을 간구하여 그것을 찾도록 영감을 받습니다. 직장, 가정 및 계보 탐구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받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주님께서서 어떤 사람을 그 직책에 부르기 원하시는지 알기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한 이름을 속삭입니다. 이 모든 예는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 성신이 교사로서 계시자로서 그의 직분을 행하시며 그것을 받는 사람을 교화시키고 인도하기 위하여 지식과 진리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간증, 예언, 위안, 용기를 북돋음, 알림의 이 다섯 가지 목적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주로 경전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계시의 나머지 세 가지 목적에 관해서는 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예를 들며 좀더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 계시의 여섯번째 종류 또는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파이의 성신의 권세를 설명하는 위대한 설교를 하던 중 갑자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말할 수 없느니라. 영이 내가 말함을 금함이니”(니이 32 : 7) 억제하는 계시는 가장 흔히 있는 형태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계시나 인도를 간구하지 않았을 때 놀랍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영에 일치하게 생활하면 억제하는 힘이 우리가 하면 안될 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이 억제하는 첫번째 경험은 제가 시카고의 어떤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 부름받은 직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스테이크 부장단 모임을 하는 동안 스테이크 부장님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우리의 새로운 스테이크 센터를 짓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왜 그 장소가 좋지 않은가 하는 이유를 너댓 가지 생각해 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조언을 구했을 때 저는 그 이유를 모두 들면서 그 안에 반대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님은 현명하게도 우리가 각자 일주일 동안 그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고 다음 모임에서 그것을 좀더 토론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형식적으로 그 문제에 관하여 토론했으며 즉시 제 생각이 틀렸으며 주님의 뜻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그 일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억제받았으며 즉시 그 건축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 장소에 스테이크 센터를 짓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것이 저에게조차 명백해졌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근시안적인 이유였으며 곧 그런 이유에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억제당한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있는 사무실에서 저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기 위하여 탁상용 펜을 집어들었는데 이것은 하루에 적어도 십 수번씩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서류는 대학교에 우리가 결정한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사전 조치는 다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잘 된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명하려는 순간 매우 부정적인 느낌과 예감으로 압도되어 그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 두고 그 문제를 전부 다시 검토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 새로운 몇 개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만일 그 조치를 취했다라면 장래에 이 대학교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번은 어떤 법률 문제에 관한 사례집을 편집하고 있는 동안 성령이 오셔서 도와 주셨습니다. 이 사례집은 수백 가지의 법정 견해와 편집자가 쓴 설명 자료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와 함께 그 책에 관한 작업을 거의 끝냈으며 이 법정 견해가 번복되거나 무효가 된 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도 다했습니다. 저는 원고를 출판업자에게 보내기 직전에 그 책장을 넘겨 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 법정 견해가 특별히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 몹시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그 견해를 점검하도록 조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옳게 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완성된 원고를 그 후에 점검할 때에도 다시 그 사례에서 멈추었으며 다시 몹시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법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입수한 출판물 가운데서 이 사례가 상고심에서

아주 최근에 번복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그 견해가 저의 사례집에 출판되었다면 저의 전문 분야에서의 수치는 대단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계시의 역제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7 계시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특정한 행동 방향을 제안하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영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물문경을 번역하려다가 실패했을 때 확인하는 계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교성 9 : 7-8)

마찬가지로 예언자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으며 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그 씨앗을 심을 장소를 마련해 준다면 그 씨앗이 그들의 영혼을 키워 주고 이해를 밝혀 주며 그들에게 달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엘마서 32장 참조) 그 느낌은 말씀의 참됨을 확인해 주는 성신의 계시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수년 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자유 의지냐 영감이냐”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계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할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매우 개인적인 예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일을 시작할 때 주님에게 가서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고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서 제가 원하는 소녀를 찾았습니다. 그 소녀는 저에게 적합했습니다……그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은 주님께 기도하여 제가 내린 결정과 관련된 인도와 지시를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올해의 말씀, 1972-73년 : 107, 111페이지)

맥콩키 장로는 자유 의지와 영감 사이의 균형에 관한 그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여받은 은사, 재능, 능력, 감각, 판단력 및 자유의지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신앙으로 간구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는 사실입니다……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인용해 주는 주님의 대답을 간구해야 합니다” (108, 110, 113 페이지)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역 대표로서 네 분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및 다른 총관리 역원들이 스테이크 부장에게 부름을 주면서 계시를 구할 때 함께 일하는 특권과 같은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스테이크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고등 평의원, 감독 및 교회 행정에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접견하고 질문하고 그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런 접견이 진행되는 동안 주님의 좋은 접견하고 언급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했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에 관하여 잠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 이를 기도로 주님께 제출합니다. 확인을 받으면 그 부름을 발표합니다. 확인받지 못하거나 억제받으면 그 제안을 보류하고 새로운 제안을 만들고 그것을 확인하는 계시를 받을 때까지 똑같은 절차를 계속합니다.

때로는 확인하는 계시와 억제하는 계시가 함께 오기도 합니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봉사하는 동안 전국 변호사 협회에서 연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준비하려면 여러 날이 필요하므로 대개 이런 종류의 연설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초청을 거절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억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저의 행동을 재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고려했으며 그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살펴 피게 되자 성령이 확인해 주는 확신을 느꼈으며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은 “사립 대학의 정부 통제에 관한 견해”였으며 수많은 중요한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여러 단체에서 똑같은 연설을 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이것은 *바이틀스 피이치즈*, 전문 잡지, 여러 정기 간행물 및 서적에 출판되었으며 사립 대학이 정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주도하는 이야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설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 단체가 교회와 관련된 대학과 정부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관하여 우리 대학교에 상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상의는 교회와 관련된 대학의 전국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공헌했으며 이것은 장래에 불법적인, 또는 현명하지 못한 정부 통제를 반대하기 위한 중요한 연합체를 제공했습니다. 이 일을 돌아보면서 거절할 뻔했던 이 연설 초청은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행동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하는 순간이며 우리가 듣고 귀기울인다면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시가 오는 시간입니다.



8 계시의 여덟번째 목적은 성령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재촉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성령이 확인해 주거나 억제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하지 않았는데 계시가 와서 제안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재촉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이런 계시는 다른 것보다 드물게 일어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경전의 예는 니파이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파이가 예루살렘의 보물고에서 중요한 기록을 얻을 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레이

밴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니파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써 니파이는 물려서서 그 영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레이밴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고 마침내 그 계시를 따랐습니다. (니파이일서 4장 참조)

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윌포드 우드럽이 어느날 밤 그의 마차와 노새를 큰 나무로부터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으라고 지시하는 느낌을 받은 기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 행했으며 30분 뒤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 그 나무는 땅에 쓸어졌고 그의 가족과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매티아스 에프 카울리, 윌포드 우드럽, 그의 생애와 노고의 역사, 331-32 페이지.)

저의 할머니 애스티 올슨 해리스도 어린 소녀였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유타주 캐슬 테일에 있는 집 근처의 메마른 강바닥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며 어린이들을 강바닥으로부터 강 둑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으며 비가 올 징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음성에 귀기울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므로 계속해서 놀았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급하게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고에 귀기울였습니다. 즉시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서 강 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막 둑에 도착하자 엄청난 강물이 계곡을 휩쓸고 내려와서 어린이들이 놀던 곳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 강물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산에 내린 폭우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재촉하는 계시가 없었다면 할머니와 어린이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저는 마빈 힐 교수와 함께 9년 동안 카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교성 9:7~8)

테지 컨스피러시(카테지 감옥의 음모)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 살해범들의 1845년 법정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판 사항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갖고 있었으며 어떤 것은 저자의 이름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서명이 없었습니다.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자료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것을 교회 역사가의 사무소에서 발견했으므로 그 재판 절차를 기록하기 위하여 보낸 교회의 공식 서기관인 조지 왓트가 갖고 있던 기록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7부의 원고에 그렇게 썼으며 그런 가정에 의하여 모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그 책이 완성되고 이제 몇 주일 이내에 마지막 원고를 출판업자에게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사무실에 앉아 있는 동안 나의 책상 위의 테이블에 쌓여 있는 아직 조사하지 않은 책과 팜플렛 봉치를 점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50내지 60개의 출판물 더미의 맨 밑바닥에서 윌포드 시

우드 박물관의 소장품을 인쇄한 목록을 찾았는데 그것은 저자인 라마 베렛 교수가 1년 반 전에 보내 준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 원고 목록의 책장을 급히 넘기는 가운데 우리가 조지 왓트의 것으로 생각했던 그 재판 내용의 원고를 설명하는 페이지에 눈이 멈추었습니다. 이 목록에서는 윌포드 우드가 어떻게 재판 일정 원본을 일리노이주에서 구입했으며 우리가 교회 역사가로부터 입수한 그 타자된 자료를 교회에 기증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유타주 우드스크로스에 있는 윌포드 우드 박물관을 찾아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교회 자료로 생각했던 그 기록이 피고를 위한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을 얻고 교회 역사가의 사무소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상당한 권위를 갖춘 조지 왓트의 정식 재판 내용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중요한 자료 하나를 알아내는데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는 우를 막아 주었으며 우리의 책 내용을 상당히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저의 사무실에서 받은 느낌은 우리가 주님의 영의 느낌을 받기에 합당할 때 우리가 의로운 전문적인 일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는 방법의 한 예가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봉사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 후에 재촉하는 제시에 관한 또 다른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새 총장으로서 저는 분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10월의 어느날 저는 어떤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할 목적으로 프로보 계

곡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 혼자였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숙고할 준비가 안된 또 다른 현안 문제가 마음속에 자꾸 들어왔습니다. 성탄절 이전에 2 학기가 끝나도록 대학교 학사 일정을 바꿔야 할까?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마음속으로부터 몰아 내려고 10분 내지 15분 동안 헛된 노력을 한 다음에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일정 문제는 시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으므로 그것에 관해서 아무런 인도도 간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성령은 그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 문제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종이에 모든 생각을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이내에 3학기 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으며 거기에는 크게 이익이 되는 점도 모두 적었습니다.

즉시 대학교로 돌아와서 그것을 동료들과 함께 검토했으며 그들이 매우 좋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에 이사회에서 우리가 제안한 새 학사 일정을 승인받았으며 그 일정을 1972년 가을에 유효하도록 아슬아슬하게 제 날짜에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 말씀을 여러 번 다시 읽고 그가 설명한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번째 알림을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깨끗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조셉

필딩 스미스 편,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6 페이지)

이제 계시의 여덟 가지 목적 내지 종류 (1)간증 (2)예언 (3)위안 (4)용기를 북돋움 (5)알림 (6)억제함 (7)확인함 (8)재촉함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받은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기 전에 받지 않은 계시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계시에 있어서 책임”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질서의 집이며 거기에서는 그의 종들이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교성 107 : 99)에 따라 행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이 원리가 계시에 적용됩니다. 교회 대관장만이 교회 전체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만이 스테이크를 특별히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습니다. 와드를 위한 계시를 받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의 신권 지도자가 그 일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책임 분야에 관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개인은 각자 자기 생활을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책임 분야 외부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계시를 받았다고 자칭할 때 즉, 교회 전체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회 회원이나 교회의 반차에 따르는 관리 권능이 없는 어떤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런 계시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짜 신호들이 있습니다.”(보이드 케이 패거, “기도와 응답” 1979년 10월 대회 보고.) 사탄은 굉장한 사기꾼이며 그가 이런 가짜 시현의 근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상상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계시가 자신의 구체적인 책임 분야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며 거기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젊은 여성에게 그녀가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참된 계시라면 그녀가 알려고만 하면 직접 그녀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그 여성은 귀기울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여성은 스스로 인도를 간구하고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행동을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녀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합당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여성은 그 남자의 관찰권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간구하는 데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청할 때 늘 영감이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늦게야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때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중요한 행동까지 다 지시하신다면 경험을 얻고 신앙을 키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좌절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립심과 신앙을 키우기 위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에 있어서도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지 않은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계시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에 관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둘 다 용납될 수 있거나 둘 다 용납될 수 없는 대안을 놓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도를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질문에 하나의 옳고 그른 것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두 가지의 틀린 대답이나 옳은 대답밖에 없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양잠음하기 위하여 추구할 두 가지 다른 방법에 관한 인도를 간구하는 사람은 계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대안이 분명히 더 바람직한 경우와 같이 장래의 어떤 사건이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될 것에 대하여 인도를 간구하는 사람도 계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은 아내와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결정에 관하여 인도해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의 최선의 판단력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확인하거나 억제하는 느낌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그 결정이 불필요하게 하는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아무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주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두 가지 대안 가운데서 선택하는 일에 인도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다른 부분의 일에서 생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대답이 모두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은 사소한 문제에 관한 계시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은 간증회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기 남편은 모

1.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복음이 참되다는 성신의 간증 또는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
2. 예언은 계시의 또 다른 목적 또는 기능입니다.
3. 계시의 세번째 목적은 위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4. 계시의 네번째 목적 또는 기능인 용기를 북돋음은 위안의 느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5. 계시의 다섯번째 목적은 알리기 위함입니다.
6. 계시의 여섯번째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7. 계시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특정한 행동 방향을 제안하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영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8. 계시의 여덟번째 목적은 성령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재촉하는 경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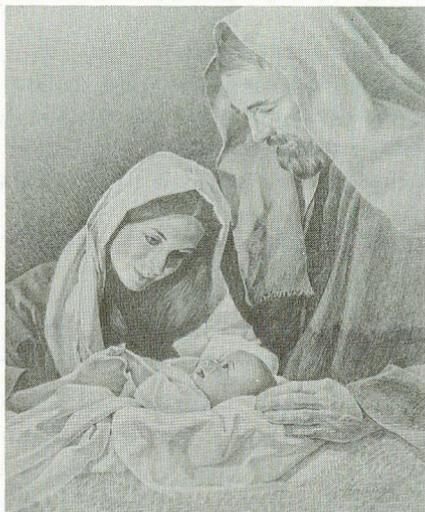
든 문제를 주님께 상의한다고 말하면서 남편의 영성을 칭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이 시장보러 갈 때 같이 가는 것과 두 종류의 야채 통조림 가운데 하나를 살 때도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부적절하다는 강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런 종류의 선택을 내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지와 경험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회원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어떤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조언을 구했을 때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여쭙거나 그의 면전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소하거나 하찮은 일로 그분께 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교회정사, 1 : 339.)

물론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사소한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사소하거나 하찮게 보이면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택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중요하다면 즉 아까 말씀드린 연설 초청이나 두 가지 야채 통조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독이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외견상 뚜렷하든 않은 우리 생활에 정말로 큰 차이를 가져오고 우리가 성령에 일치하여 생활하고 그의 인도를 간구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도를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 중요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움없는 곳에 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

오우크스 형제는 전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으로서 현재는 유타주 대법원 판사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선물



대관장단이
온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진정 크리스마스는 일년 중 가장 기쁜 날 중의 하루입니다.

거룩한 아기의 탄생은 매우 중요했으며 또한 기쁜 일이었으므로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

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평화로다.”(누가복음 2:9-14)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분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 제일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지상에 오셔서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옳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신 후에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심으로써 우리들도 역시 부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은사 즉,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것과 그분께서 후에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와 다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영원토록 지속되는 가치를 지닌 위대한 은사에 대해 잠시 동안 조용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부모와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보여 주시는 사랑과 성의와 관심.

의롭게 살라는 그분들의 권고가 여러분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교인들의 희망.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참된 회개를 받아들이는 관용.

신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특권과 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내적인 보상.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평화와 안전과 성공을 위해 하는 기도.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지닐 수 있는 선물입니다.

더 많은 이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과 가족과 교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친절은 금방 배가 되어 영원토록 점점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자주 하시고, 여러분이 혹 달리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옳은 일의 실행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과 축복을 드리며, 유쾌하고 기억될 만한 성탄절 휴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



“요셉 형제”

12월 23일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1805년 바로 그 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자는 어린이를 사랑했으며 어린이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떤 소년은 자기 가족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그들의 농장에서부터 커틀랜드로 가고 있을 때 예언자께서도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그들의 농장에서부터 커틀랜드까지 가곤 하셨는데, 예언자께서 그의 특별한 축복을 줄 어린이들을 찾아 이마차 저 마차로 옮겨 타시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를 “요셉 형제”라고 불렀으며, 그는 언제나 그들에게 미소로 대하였습니다. 한번은 예언자가 그를 죽이려는 사악한 사람들을 피해 어떤 집에 숨어 있었는데,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그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예언자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때 일곱 살 된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 우리는 기도를 하여 요셉 형제님을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려야 해.”

몇 분 후에 예언자는 침실 문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안전을 비는 그들의 간단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양 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린이들이 무릎을 털고 일어선자 그중 한 어린이가 “이제 요셉 형제님은 안전하실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그를 밤새도록 호위하기 위해 와 있는 친구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실 것이므로, 그날 밤 그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여기에 요셉 형제를 잘 알고 좋아하던 어린이들이 그에 관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우리는 메인가와 팔리가의 모퉁이에 있는 그의 집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며 잠시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어느날 내 형 왈리스와 내가 학교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매우 질척거렸습니다. 특히 요셉의 벽돌 가게라고 알려진 건물이 있는 그 길은 더욱 심했습니다. 왈리스와 나는 진흙 속에 빠져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작은 애들처럼 울기 시

작했습니다. 내가 위를 쳐다보자 어린이들의 사랑하는 친구인 요셉 스미스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곧 우리를 약간 높은 마른 땅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굽혀 진흙으로 뒤편벽이 된 우리의 작은 신발에서 진흙을 털어 주었고,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로 얼룩진 우리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우리의 등교 길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왈리스와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년 후 내 남편은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 요셉 형제가 그의 집에 와서 그의 어머니가 낳은 쌍둥이 아기 중에서 한 명을 좀 데려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기가 죽은 이래 그의 부인 엠마가 너무 슬퍼하고 외로워하는데, 여자 아기를 한 명 돌보게 되면 그녀가 위로를 받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언자는 아침에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저녁마다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는 저녁 때가 되어 아기가 평소 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하여 가보았습니다. 예언자는 불결에서 아기를 비단 담요로 싸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며 노래를 불러 주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엠 버지스

나는 열 네 살 때 예언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내 눈길이 그에게 닿는 순간, 나는 그를 알아보았으며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감동적인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게 그를 지적해 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와 같은 어린이나 그밖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리 앨리스 램버트

내가 열 네 살 때 예언자가 우리 집에서 머무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있는 13일 동안에 나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하여 내가 만나 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존 에이치 헤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학교 운동장에 있을 때 그는 종종 걸음을 멈추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항상 소녀들과 악수를 하였으며, 소년들과는 구슬치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메리 제인 라이트

나는 예언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홉 살 때 그의 형 하이람의 벽돌 사무소에서 미첼양이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예언자의 집을 지나가는데 그가 나를 부르더니 학교에서 어떤 책을 읽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몰몬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학교에서 사용하는 몰몬경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선물입니다.

제시 엔 스미스*

백설의 담요

도로시 비 루비



리브와 이바가 유리창 밖의 굽이치는 하얀 산마루를 바라보고 있을 때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녹은 눈에 비쳐 반짝거리고 고드름은 우는 것처럼 녹아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목재로 된 탑 위에서 전나무의 어린 묘목 사이사이로 꼬불꼬불하게 나 있는 그들의 쓸쓸한 스키 트랙을 볼 수 있었다.

“우리만이 노르웨이에 남아 있다는 느낌이야.” 이바가 사뭇 진지하게 말했다.

“산을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리브가 약간 불안해 하면서 동의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 아빠와 엄마도 혼프젤의 스키 여행에서 곧 돌아오실거야. 아빠와 엄마가 도착하기 전에 산막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이제 돌아가자.”

이바는 여섯 살밖에 안되었으므로, 리브는 그를 너무 멀리 데려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재 경비원 망루의 정경이 뒤돌아 서려는 그들을 자꾸 잡아당겼다.

엄마가 그날 아침 아빠와 함께 떠나면서 리브에게 주신 주의였다. “이번 휴가 기간에 여기에 온 사람은 우리 가족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건 네가 네 자신과

이바를 정말로 잘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열 두 살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리브는 샌드위치를 좀 가져왔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아빠는 스키로 어디를 가실 때는 반드시 배낭에 음식과 여벌의 옷을 가지고 다니셨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어야.”라고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다. 아빠를 생각하자 리브는 서두르고 싶어졌다. 그녀는 준비를 갖추지 않고 탐험에 나선 자신의 모습을 아빠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뿐일 거야, 그렇지만 동물은 많이 있어. 저기 쥐가 다니는 길을 좀 봐.” 리브는 스키의 끈을 단단히 묶기 위해 멈추면서 말했다.

“쥐가 어디 있는데?” 이바가 물었다.

“쥐는 눈에 덜인 굴속에서 살아. 쥐는 이끼와 씨앗을 먹고 잔디로 된 보금자리에서 잠을 잔단다. 그리고 봄이 되면 나와서 햇빛을 본단다.”라고 리브가 설명을 해주었다.

이바는 웅크리고 앉아 눈 위에 뚫린 구



멍을 응시했다.

“저 아래는 따뜻할까?”라고 그가 물었다.

“그렇겠지. 눈이 마치 바람과 추위를 막아 주는 담요 같을 테니까 말이야.”

리브는 모자를 잡아당겨 이바의 귀를 덮어 주면서 말했다. “이 산마루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돌아가자꾸나. 나무가 없는 길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

늦은 오후의 추위에 눈이 얼어 붙어서, 그들이 발길을 재촉하여 걸음을 떼어 놓을 때마다 길게 미끄러졌다.

“리브, 내 그림자가 얼마나 기다란지 봐. 내가 거인이네—훅주린 거인.”이라고 이바가 소리쳤다.

“우리는 곧 집에 도달할거야.” 리브가 대꾸했다.

그러나 리브는 두려움을 몰아 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망루에 갈 때보다 훨씬 오랫동안 스키를 탄 것 같이 느꼈다. 아마 그녀가 나무 뒷쪽의 다른 길로 접어들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산마루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 오두막 옆에 있던 호수가 보이는지 보자.” 리

브가 동생에게 얼굴을 돌리며 제안했다. 그러나 이바는 그녀 뒤에 있지 않았다. 그의 스키 속력이 점점 느려졌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한참 뒤쳐져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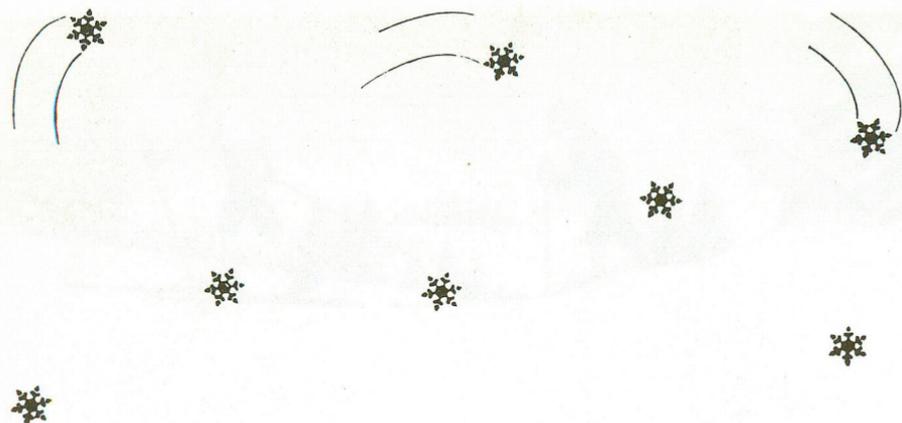
“나는 그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겠어.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 이바가 뒤쫓아 와서 울먹였다.

“네가 피곤하다는 것은 나도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되잖아. 저 꼭대기에 도착하면 초콜렛을 한 조각 줄께.” 리브는 심장이 두근거렸으나, 목소리를 침착하게 하려고 애썼다.

가파른 경사길을 천천히 꾸불꾸불 올라가면서 이바에게 따라오기를 재촉하는 리브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그들이 산등성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것은 온통 낯선 산마루뿐이었다.

리브는 악수를 하고 나서 초콜렛을 꺼내 반으로 잘랐다. 이바는 두 입에 다 먹어 버렸지만 리브는 그녀의 몫을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나중에 그것이 필요할지도 몰라서였다.

리브는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 속은 온갖 생각이 뒤범벅이 되어서 자포 자기가 되어 버렸다. 그들은 어둡기 전에 호수를 찾지 못하고 길을 잃었다. 이미 날씨가 추워져서 질척거리던 눈은 곧 얼음으로 변하였다. 그들이 계속 몸을 움직이는 동안은 추위를 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바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겠는가? “이 산마루에서 빠져 나가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구나.”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하였으나 목 소리가 떨려 나왔다.

나무 사이로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옷이 나뭇 가지에 걸리고 또한 묻혀 있던 그루터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이바는 넘어지자 피로에 지쳐 눈 위에 그대로 누워 버렸으므로, 리브는 그의 팔을 잡고 일으켜서 그를 다시 스키에 세워 주었다.

언덕 아래에 다다르니 거기에는 잔디가 있었다.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자 리브는 다른 쪽으로 가면 헛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헛간이란 것이 네 기둥과 지붕으로 되어 겨우 빗줄기나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일 뿐임을 알자 리브는 얼음처럼 싸늘한 절망에 사로잡혔다. 거기에는 지난

여름의 건초 몇 아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바는 와들와들 떨면서 간혹 흘쩍거릴 뿐 잠자코 있었다. 리브는 꼭 생쥐 같은 신세라고 처량하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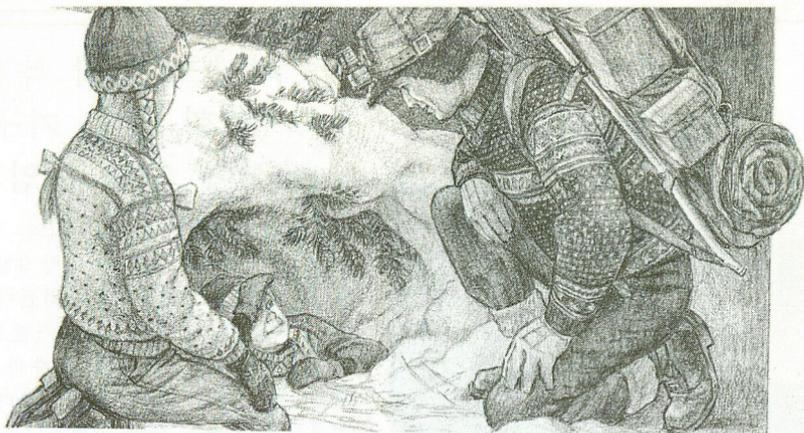
음, 그래! 정말 생쥐 같애! 잡자기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취가 사는 집을 만들어야겠어, 너 좀 도와 줄래?” 그녀는 한껏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녀는 건초 오두막에서 느슨해진 지붕널을 확 잡아당겼다. 리브는 눈 옆에 묘목이 거의 두 겹이 되도록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최대한으로 빨리 그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가지가 터널의 지붕 역할을 해주었다.

“그 건초를 이리 가지고 와.” 그녀는 이바에게 소리쳤다.

이바는 천천히 건초를 한 아름 모아 발을 끌면서 리브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눈이 맹렬히 휘날리는 것을 보더니 두 번째에는 좀더 서둘렀다. 그가 점점 빨리 움직일수록 몸이 점점 따뜻해졌다.

터널이 충분히 깊어지자 리브는 오래된 건초로 안을 막았다. “이제 쥐들이 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기어갈꺼야.”라고 리브가 말했다.



이바는 꺾꺾거리고 웃었다. 그들 두 어린이는 첫발을 더듬으며 눈 동굴로 들어갔다. 리브는 건초를 그들 위로 잡아당기고, 그들은 함께 몸을 구부리고 앉았다. 그 안이 정말 훈훈하지는 않았지만, 리브는 적어도 더 이상 춥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근새근 가늘게 코를 고는 이바의 숨 소리가 마치 영원처럼 들리는 가운데 리브는 빙판으로 변한 눈 위에서 쉼쉼 스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터널을 더듬고 나와 풀발을 바라보았다. 10미터도 채 안된 거리에 밝은 손전등을 이마에 달고 있는 사람 같은 물체가 있었다.

“아빠!” 리브는 울음을 터뜨리며 눈과 곰팡이내 나는 건초 더미를 헤치고 동굴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아이구! 드디어 너희를 찾았구나.” 아빠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 같았으나, 리브가 그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했었는가를 말하자, 아빠는 웃기 시작했고 리브는 모든 것이 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을 때 이바가 구멍에서 불쑥 나왔다. “아빠, 아빠는 쥐가 눈 아래에서 산다는 것을 아셨어

요? 누나는 그걸 알고 있었나 봐요.” 이바는 기뻐서 쾅쾅쾅쾅 뛰며 춤을 추었다.

아빠는 무거운 배낭을 내렸다. 배낭에는 작은 텐트, 포근한 칩냥, 그리고 많은 양의 고기와 빵이 있었다.

“아빠는 어떻게 우리를 찾았어요?” 그들이 텐트 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 리브가 물었다.

“나는 너희가 간 길을 따라왔지. 길이 푹푹 얼어서 바람이 불어도 너희들의 자국이 남아 있더구나. 이 주위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 나는 그것이 너희들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후에 이바가 잠이 들자, 리브가 속삭였다. “아빠,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제게 화나셨죠?”

“아니란다.” 아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너는 안전 수칙을 깨뜨렸지만, 슬기로 네 자신과 이바를 구했잖니?”

*

제13회 입학 및 졸업식 (서 신학 연구원)



졸업생 일동과 신권 지도자들

9월의 첫 주말인 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 신학 연구원에서는 제13회 졸업식 및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각 스테이크 부장 및 신권 지도자를 포함하여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식전에서 북 스테이크 금촌지부 소속의 정운 형제가 교육 기구 대표상(우등상)을 받았다.

김 차봉 서 신학 연구원장과 서울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는 식사를 통하여 신학 연구원의 필요성과 의인의 힘은 위대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어서 전통적인 떡파티가 열려 150여 명의 신입생은 졸업생들과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



졸업식 및 입학식 광경

